

# 하나님의 말씀

생각할 능력과 생각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 목차

6679 생각하는 능력에 의무가 주어진다.....	3
6859 하나님과 생각으로 교체하는 축복.....	5
8637 능력, 자기를 의식하는 것, 생각하는 능력, 의지.....	6
7222 세상적인 또는 영적인 생각의 파장.....	7
6843 생각은 영적 영역에서 발산 된다.....	9
5717 생각의 물결은 의지를 따라 움직인다.....	11
6963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각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2
1417 생각하는 일. 뇌. 인상(그림).....	13
6375 생각하는 일.....	15
0962 생각하는 일. 심장. 두뇌.....	17
2363 생각하는 기관.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 흘러 들어옴.....	18
2039a 생각 활동.....	19
2039b 생각 활동.....	19
2302 심장에서 나오는 생각과 이성에서 나오는 생각. 진리.....	20
1757 생각은 영적인 힘이다.....	21
6296 생각의 게으름.....	22
1580 사람의 생각에 미치는 거짓 권세자의 영향.....	23
7448 하나님은 생각하기를 요구한다.....	25
3160 생각을 교환하는 일의 축복.....	27
7376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대상이 되길 원하십니다.....	28
5199 이성의 사고. 하나님의 진리.....	29

생각하는 능력에 의무가 주어진다.

B.D. No. 6679

1956년 10월 27일

**너**희는 나에 의해 생성되었다. 그러므로 너희의 원래의 성분은 나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해야만 했다. 왜냐면 나에게서 온전하지 못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제 인간으로서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일은 너희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에게 힘뿐만 아니라 깨달음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에게 많은 지식이 부족하고 너희가 또한 비록 너희의 뜻이라 할지라도 제한이 없이 창조하고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고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명해줄 필요가 없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서 이런 부족한 상태를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너희는 자주 의심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기원에 대한 다른 설명도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왜냐면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생성을 믿어야만 하고 증거 없이 받아드려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가 진리에 가까워지려는 의지를 가지고 너희 자신과 또한 전체 창조물의 생성에 대해 생각한다면, 너희는 내면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내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고 단지 이런 능력만으로도 너희에게 증거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명이 있고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를 증거하고 이런 존재가 스스로 생성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를 근원으로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인간 자신의 생명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생명을 알게 해준다. 왜냐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존재하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적 출산 과정도 또한 생명체가 생성되게 하려는 의지를 가진 입법자가 먼저 정한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너희가 전능한 창조주의 피조물이라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여겨져야만 한다.

너희가 이런 질문을 할 정도에 너희의 이성의 사고에 도달했다면, 너희가 이 땅의 과제를 생각의 형태로 너희에게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이 땅의 과제는 너희가 나에 의해 생성되었을 때 가졌던 원래의 온전함을 다시 달성하기 위해 추구해야만 하는 일이다. 너희 사람들에게 증거가 없지만 너희는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유일하게 너희의 존재 목적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구하라는 의무를 부여한다. 나는 그런 갈망을 확실하게 성취시켜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내 소유이고 너희가 내가 한 목적을 위해 창조한 내 사랑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에게 부족한 지식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얻기 위해 너희 자신의 의지가 필요하다. 너희는 강요받지 않는다. 왜냐면 너희가 바로 원래 자유롭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생명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인간이 다시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는 일이다. 올바른 삶을 사는 일은 쉽게 가능하다. 왜냐면 인간이 내 말씀을 통해서든 운명적인 영향력을 통해서든 나로부터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에 긍정적인 자세를 갖거나 또는 부정적인 자세를 갖는 일은 항상 그의 의지이고 이 의지는 자유하다.

그러나 비록 사람들이 나와 내 피조물 사이의 연결을 부인할지라도 나와 내 피조물 사이의 연결은 유지가 된다. 왜냐면 내가 내 뜻과 내 사랑의 힘을 그에게 거두어드린다면, 그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나를 거부하고 자신을 완전히 의존되지 않는 피조물로 여기는 동안에는 그는 이런 연결을 느끼지 않는다. 그가 자유의지로 나와 연결을 이루기 위해 전적으로 의식하는 가운데 추구하면, 그가 비로소 자신과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 그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 가게 된다. 그러면 그가 빛과 힘을 가지고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말할 수 없게 축복되게 될 것이다.

아멘

**나**는 누구든지 나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과 대화한다. 그러면 그는 더 높은 곳을 향한 안전한 길을 간다. 그리고 나는 내 말씀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과 대화 하고 생각으로 나에게 질문함으로 생각으로 주어지는 내 답변으로 판단해도 되는 것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과 대화한다. 너희가 나를 향한 생각과 진리를 체험하려는 생각으로 나를 진리의 출처로 한번 인정하면, 너희는 더 이상 잘못 된 생각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에게 인도를 구할 때 너희는 더 이상 잘못 된 길을 갈 수 없다. 너희는 단지 너희의 자유의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있게 나에게 기회를 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일은 너희가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인 나를 생각할 때 항상 이뤄진다. 왜냐면 너희의 모든 생각이 나를 너희에게 부르고 나는 너희의 부름에 따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주 나를 생각해야 한다. 왜냐면 나를 생각하는 일은 내가 너희와 대화하려는 시도에 너희 심장의 문을 여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항상 단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와 대화하려는 시도로 인해 너희에게 전달 된 내 의지를 실행할 수 있게 너희가 항상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한때 스스로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와 나의 연합은 너희가 스스로 이뤄야만 한다. 너희는 단지 나를 거절하는 의지가 없이 나를 생각하면 된다. 내가 너희의 생각 속에 너희가 나와 다시 연결되려는 의지를 알아차리면, 나는 항상 너희에게 다가 갈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면 너희는 진실로 더 이상 잘못 된 길을 가지 않도록 보호를 받는다. 왜냐면 내가 이제 너희에게 말할 수 있게 됨으로써 너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에서 너희가 쇠하지 않는 축복할 수 없는 부를 얻는 일이 진실로 어렵지 않다. 왜냐면 생각으로 나와 연결되어 사는 삶이 부를 주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는 일은 전적으로 불가능하고 내가 너희의 이런 연합을 무시하며 응답하지 않는 일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너희가 나와 연결을 이루는 시간을 나는 간절히 기다리고 너희가 나와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이나 또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인 나에게 질문하는 시간과 너희가 침묵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나는 간절히 기다린다. 내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너희에게 직접 말할 수 없으면, 생각의 형태로 나는 너희에게 확실하게 대답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나와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과 권리가 있고 그가 원하는 만큼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육체가 분명하게 받는 것은 없지만 혼은 제한이 없게 충만하게 받는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 원하고 내 음성 듣기 원하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는 너희 모두에게 말한다. 너희는 이런 내 약속을 잘 활용해야 한다. 너희는 경쟁적으로 모든 자유한 일분, 일분의 시간을 나에게 드려야 한다. 그럴 때 너희는 이 땅의 너희의 시간을 잘 활용한 것이다. 그러면 나와 연결을 이루는 일이 아주 자주 일어날 것이다. 왜냐면 이제 너희 심장 속 깊은 곳으로부터 너희가 아버지로 깨달은 나를 원하고 너희가 이제 항상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원해서 모든 것을 따르고 내 뜻을 성취 시키려고 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스스로 내 뜻을 너희 자신의 뜻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나와 나의 연합이 내 의지에 계속하여 복종하는 일로 나타나기 때문이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고 너희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는 빛이 너희 안에 임했기 때문이다. 매일 매시간마다 나

를 생각하고 무엇을 시작하던지 간에 나를 제외시키지 말라. 너희가 생각으로 나를 항상 부름으로써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진실로 이 땅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성장하고 성숙하여 목표에 도달할 것이고 너희는 다시 영원히 나와 떨어지지 않기 위해 연합이 될 것이다.

아멘

능력, 자기를 의식하는 것, 생각하는 능력, 의지.

B.D. No. 8637

1963년 10월 6일

**만**약에 내 능력이 너희에게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면, 너의 사람들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나로부터 한때 비추어 나온 능력이고 너희 안의 실제적인 생명인 혼이 너희를 떠나면 너희는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힘의 원천인 나에게서 흘러 나오는 신적인 능력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희에게 너희 육신의 삶은 단지 자연적인 과정이다. 너희는 이 과정을 스스로 설명할 수 없고 이 과정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 무관심하고 너희가 언젠가 너희의 이 땅의 삶을 떠나야만 할 때 만약에 너희가 계속 산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비로소 너희가 허무하다는 생각하게 될 수 있다.

그렇지라도 너희 안에 있는 나로부터 나온 능력이 근거가 된 혼으로써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식함을 너희는 이해할 수 없다. 너희가 근본적으로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처럼 같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너희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약에 너희가 이 땅의 삶의 실제적인 목적을 의식하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을 활용하지 않게 된다. 모든 사람은 원래는 신적인 피조물이다.

왜냐면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그의 시작점이 아니고 나로부터 한때 모든 온전함으로 창조된 존재가 끝이 없는 오류를 범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항상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에게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능력은 같은 능력이다. 이 능력은 단지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처럼 이 전의 존재들 안에서 여러가지 단계로 역사한다. 한때 같은 능력으로 제한이 없이 창조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반면에 사람 안에 있는 능력은 그의 한때 나로부터 타락했던 결과인 저항 때문에 단지 최소의 것만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전적으로 내 의지와 합하여 그가 이 땅에서 자신의 완성을 이루면, 일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이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관해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 주변에 마찬가지로 나로부터 나온 능력인 그렇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을 모든 창조의 작품들과 자기 자신을 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왜냐면 내 능력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단지 각각의 능력의 입자들이 인간의 혼으로 모일 때까지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창조의 작품들이고 모이면 다시 전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의식할 수 있다. 자기를 의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돌려받는다. 이 능력이 그로 하여금 그가 선한 의지를 가졌을 때 자신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비교평가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그 안의 아주 작은 사랑의 씨

앗이 작은 빛을 밝힐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그가 한때 소유했던, 그러나 자신이 타락함으로 잃었던, 신적인 능력들을 일깨우게 할 수 있다.

왜냐면 신적인 피조물인 모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능력은 어떤 방식으로 던지 역사를 하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인간의 의지가 능력을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용하여 계속하여 신적인 능력의 증가를 가져오게 할지 또는 단지 육체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존재들이 나로부터 타락했을 때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오용할지를 결정한다.

왜냐면 존재들이 내 의지를 따라 일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 된 의지로 내 의지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전적으로 의식했을 때 그래서 자신이 존재가 단지 신적인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통해 보장이 된다는 것을 의식했을 때 비로소 그는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이 계속하여 증가시키는데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그는 사랑 안에서 역사할 것이다. 그는 그가 사랑을 행하면 행할수록 항상 그의 능력은 충만할 것이다. 너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단지 나로부터 온 능력이다. 마찬가지로 너의 인간들도 너희의 원래 입자 안에서 단지 나로부터 비추어서 나온 능력이 될 수 있다.

너희는 전적인 지혜인 너희 창조주가 한가지 목적 때문에 너희에게 생명을 부여했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 목적이 그러나 단지 세상적인 성과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성 혼자서도 이미 너희에게 말해 주었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질문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의 인간으로써 존재의 목적을 찾아보려고 해야 한다. 너희에게 이런 생각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너희 안에서 떠오르면 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진지하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진실로 비록 단지 생각을 통해 주어질 지라도 그가 영접할 만한 답변을 받지 않고 남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아주 작게 여겨서 자신이 자연의 능력의 우연한 작품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이 땅에 삶의 마지막에 가서 어떠한 영적인 성공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인간으로 육신을 입을 당시와 같은 상태가 될 것이다. 또는 더 깊게 퇴보할 것이다. 왜냐면 그 안에는 한때 나로부터 타락하게 만든 같은 나에게 대항하려는 저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저항을 나는 강제적으로 꺾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언젠가 스스로 이런 저항을 포기하고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그는 끝 없이 오랜 동안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

아멘

세상적인 또는 영적인 생각의 파장.

B.D. No. 7222

1958년 12월 6일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만큼, 너희는 더 쉽게 영의 나라의 입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영의 나라에서 너희에게 흘러가는 생각이 더 이상 저항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런 영적인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방해가 된다. 왜냐면 영적인 생각이 단지 전적으로 방향을 바꾼 곳에서 사람의 심장의 영접을 받기 때문이다.

이로써 너희는 사람들이 아직 세상에 묶여 있으면, 그들이 왜 아주 적게 영적인 생각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왜냐면 세상 생각은 항상 영적인 생각을 물리치기 때문이다. 왜냐면 세상 생각이 사람에게 먼저 임해 영적인 생각이 그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사람이 영적인 생각을 영접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라도 사람 자신에게 자신을 지배하는 생각의 내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왜냐면 유일하게 자유의지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할지를 결정하고 자유의지가 그의 주변에 맴도는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거부하기 때문이다. 의지는 사람의 영적이거나 또는 세상적인 성품대로 그 방향을 향한다.

의지는 한 방향이나 또는 다른 방향을 향하게 강요받지 않는다. 의지는 전적으로 자유하다. 이런 의지 방향에 따라 모든 것이 그의 생각과 그의 행하는 것과 그의 혼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그러나 끔찍하게 될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운명이 달려 있다. 그러므로 세상은 사람의 의지에 위험이 된다.

그러나 혼이 선명하게 되게 하기 위해 혼이 세상과 영의 나라 사이에서 결정해야만 하게 하기 위해 이 위험은 있어야만 한다. 두 가지 나라가 존재한다. 혼은 단지 한 나라를 원할 수 있고 이 나라를 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혼이 물질의 나라인 세상을 선택하면, 혼은 물질의 나라에 묶인다.

혼이 영의 나라를 선택하면, 이 땅의 육신을 떠나면, 혼의 이 땅의 과정을 마치면, 영의 나라가 혼의 거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두 나라는 혼을 자기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시도한다. 혼은 두 나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강요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혼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진다.

왜냐면 혼은 모든 방향으로 자신의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붙잡을 수 있게 혼 앞에 있고 영적인 세상은 걸로 보기에 실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올바르게 결정하는 일이 혼에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왜냐면 영의 세력들이 혼에 대해 어느 정도 권세를 가지고 있어 영의 세력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또 다시 개입을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사람이 이를 깨닫고 이에 관한 자세를 정해야만 하고 그가 단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의 세력들이 그에게 접촉했고 그러므로 그는 그에게 책임을 요구하면,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람은 생각할 수 있다. 이 점이 바로 그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이유이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생각하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가 무엇을 생각할지 그에게 전적으로 자유하다. 생각이 올바르게 되는 일이 항상 긍정적인 의미로 그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선한 영적인 세력의 목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세력들도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한 세력을 따르고 다른 세력을 따르지 않는 일을 "영적인 강요"라고 말할 수 없다. 세상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면, 영적인 생각 가운데 머물기 위해 내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는 의지가 이런 내적인 싸움에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은 이미 승리한 것이다. 사람이 더 많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록 승리는 더 크게 될 것이다. 왜냐면 유혹이 더 클수록 저항이 크게 될 것이고 자신을 관철시켜서 영의 나라를 위해 결정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은 언젠가 승리를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혼 자신이 영원 가운데 거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혼은 축복된 삶을 맞이할 것이고 항상 단지 자신에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다.

아멘

생각은 영적 영역에서 발산 된다.

B.D. No. 6843

1957년 6월 1일

**아**무도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운명을 정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다음날 부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갑작스럽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런 확실한 지식을 단지 가장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사후의 삶인 영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하면서 활용한다. 그들에게 죽음 후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삶을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후의 삶에 대한 증거를 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그러면 이런 일이 이 땅의 모든 삶의 길을 쓸모 없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의 삶의 목적은 의지가 완전한 자유롭게 결정하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증거는 이미 의지에 강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하고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더라도 그들이 선명한 깨달음을 얻기를 추구하면, 그들은 선명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땅의 삶의 기간을 위해 생각하는 능력을 선물을 받았다. 즉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생각이 진리인지 시험할 수 있는 이성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잘못되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일은 사람들에게 양측에서 생각이 전달 된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생각을 택할지는 그들 자신에게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생각 자체는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다. 즉 사람이 자신 안에서 생성되게 해서 밖으로 발산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나라에서 온 힘으로 생각이 사람 자신에게 흘러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육체의 죽음으로 너희의 생각이 멈추지 않고 혼이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발산을 생각의 형체로 받는 점에서 자신을 의식하는 혼의 생각이 하나님과 상관성을 증명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반면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가 아직 이 땅에 거하든 또는 저세상의 나라에 거하든 이런 존재에 대한 영향력을 얻는다. 그러므로 생각은 멈추지 않고 단지 혼란스럽게 되거나 또는 완전히 잘못될 수 있다. 혼의 성숙한 정도가 낮으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뜻을 강제로 관철시키지 않고 존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항복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므로 생각은 어떤 영적인 것이고 크거나 적게 진리에 합당하다. 그러나 생각은 항상 영의 나라에서 온다. 그러므로 생각은 힘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다시 이 힘은 이 힘의 출처에 따라 좋은 결과를 나타내거나 또는 나쁜 결과를 나타낸다.

계속되는 삶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인간 자신 안에서 나온다는 설명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죽음이 모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사라지게 할 것이고 혼이라는 개념을 또한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다. 혼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곁형체인 육체와 상반되는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는 인간의 내면의 삶이고 혼은 불멸하다. 그러므로 혼이 죽음 후에도 계속 살아야 한다면, 혼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살아 있는 자신을 의식하는 어떤 존재는 그가 생각하고 느끼고 원할 수 있는 이런 특성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런 능력이 없는 동안에는 존재는 아직 묶임을 받은 상태에 있고 그러면 그의 행동에 대해 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존재는 이 땅의 삶 동안에 과제가 주어졌고 그러므로 존재는 생각하고 의지를 갖고 생각과 의지대로 행할 수 있어야만 하고 존재는 이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겼던 하나님의 질서에 자유의지로 순종해야 한다.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일로 전적으로 어두움에 빠졌기 때문에 즉 전적으로 깨달음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존재는 이제 자유의지로 결정하도록 지식을 다시 얻게 돼야만 한다. 이런 지식이 이제 영의 나라에서 그에게 흘러 가고 사람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거나 다시 거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은 빛의 나라에서 나올 수 있고 또한 어두움의 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흐름이다. 사람은 자신에게 흘러오는 생각을 헤아려 보도록 이성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나 빛의 영역에서 온 생각의 물결을 이해하기 위해 이성의 날카로움은 사랑을 행할 준비가 된 심장보다 적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해하는 일은 또한 깨달음의 정도에 상응하고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일이 쉽게 될 것이다. 반면에 어두움의 나라에서 온 생각이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는 이런 생각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점점 더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빠진다.

사람은 생각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산물로 믿고 자신이 이성의 힘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가르침을 통해 만들어 낸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렇다면 죽음의 순간에 사람의 진정한 나이고 그러므로 생각과 느낌과 원하는 일을 잃을 수 없고 계속하여 생각의 파장의 영역에 거하지만 그러나 혼이 이제 활동하는 영역을 스스로 창조했거나 또는 아직 창조할 수 있는 그의 혼이 완전히 비어 있게 될 것이다.

혼의 생각은 어두운 영역에서 연약하고 전적으로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혼은 생각할 수 있고 혼이 원하면, 이런 생각을 해명할 수 있다. 생각은 사라질 수 없는 영적인 힘이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은 어떤 결과이든 결과가 나타나게 한다. 생각이 어두움의 영역에서 흘러 나와 영접을 받으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생각이 빛의 나라에서 나와 인간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람 자신이 빛의 나라와 연결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세를 증명하기 만하면 된다.

그러므로 대적자에게 묶여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선한 생각이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같은 파장을 가진 생각이 그에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생각이 그에게 구원하는 효과를 주고 생각이 그에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주는 깨달음을 전해주려면, 그는 이런 생각이 자신을 감싸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일이 모든 사람의 이 땅의 삶의 목표이고 사람은 이런 목표의 달성을 목적으로 이 땅으로 육신을 입도록 허락을 받기 때문이다.

생각의 물결은 의지를 따라 움직인다.

B.D. No. 5717

1953년 7월 6일

**때** 때로 빛이 없는 영의 영역에서 나온 생각이 너희에게 침입한다. 그러므로 이런 영들이 아직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물질적인 생각을 전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의 근처에 머문다. 사람은 끊임없이 생각의 물결에 휩싸여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항상 자신의 의지에 합당한 생각을 자신 안으로 받아드린다. 인간이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존재들이 그의 생각의 세계에 들어가는 일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침입하지 않고, 생각이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지만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런 존재들이 때때 자신의 말을 듣게 하려고 침입하는 일은 위험이 아니다. 왜냐면 영의 세계와 빛의 나라의 존재들이 이미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자원하여 듣고, 자신을 알리려는 세상적인 생각을 항상 또 다시 물리치기 때문이다. 사람이 영적인 관계를 이루기 원하면,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은 자신을 관찰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단지 한 가지 일이다. 그는 영적인 생각을 세상적인 생각과 섞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어떤 특정한 존재가 개입하고, 그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지 않고, 고요함으로 물러나지 않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으로부터 생각으로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 그 자신이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실제 자신에게 옳지 않은 생각을 물리칠 수 있고, 그는 단지 보호와 도움을 구하는 짧은 부름을 하나님께 보내면 된다.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존재들의 모든 접근은 빛의 존재들에 의해 거부되고, 빛의 존재들은 자신들과 연결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을 둘러싸는 벽을 세울 권리가 있다. 그러면 모든 잘못되거나 또는 세상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불가능하고, 심장은 항상 진리에 합당하는 영적인 흐름에 자신을 연다.

인간이 연관관계를 알고, 두 나라의 존재들이 생각에게 주는 발산을 알고, 자신이 진지하다면, 그는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이로써 그에게 유익하지 않은 생각의 물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것이다. 그런 존재들이 그에게 들어오는 일에 사람의 의지가 결정적이고, 그의 의지가 이제 빛 안에 거하고, 그에게 빛을 전할 권리와 사명을 가진 존재들에게 향하면, 그의 의지가 그에게 진리를 보장한다.

영적 재물을 받아 이제 이웃에게 전하는 일은 책임 있는 직분이다. 이 직분을 진지한 의지로 단지 순수한 진리를 받고 전하기 원하는 사람이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지는 항상 성취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리를 받기 위해 영의 세력들에게 자신을 의탁하면, 무지한 세력들이 접근하는 일이 항상 거부된다. 그러면 그는 어떤 오류부터라도 보호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진리를 갈망하고, 진리를 전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의 축복이 또한 가장 순수한 진리임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즉 그의 축복이 잘못된 인도로부터 보호하고, 어두움의 세력들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이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각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B.D. No. 6963  
1957년 11월 8일

**너**희는 스스로 너희 안에서 생각을 만들어 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올라오는 생각을 붙잡고 활용할 수 있다. 왜냐면 생각은 영적인 능력의 발산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까이 준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자신 안에서 발산되어 나올 수 없는 생각의 발산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없음을 생각하면, 너희는 이를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모든 사람이 영의 나라로부터 나온, 그 자신이 이런 생각을 만들어 냈다는 증거가 절대 될 수 없는 생각의 흐름이 자신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허용하면,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내가 너희를 자립적인 피조물로 내 밖으로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였을 때 나는 너희와 나 사이에 연결을 이루었다.

이 연결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가 나에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었다. 너희는 이런 음성을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이 느낌은 너희를 위해 너희가 "말씀"이라고 이름을 지은 너희가 들을 수 있는 "생각"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 이런 생각이나 또는 말씀에 대한 자세를 정하고 이제 너희의 의지 합당하게 대답하거나 또는 너희에게 주어진 생각을 스스로 계속해 생각하며 너희의 뜻대로 생각을 형성하거나 형성해 나간다. 너희는 동시에 생각을 모든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생각을 올바르게 또는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피조물인 너희와 너희의 의지에 합당하게 교통하기 위해 너희에게 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 먼저 무엇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이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은 나 자신이다. 피조물들의 생명이나 또는 최고로 높은 영들의 행복이건 상관이 없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처럼 "말씀"도 내 안에서 나온 것이고 먼저 사람 안에 생각으로 떠오른다. 그러나 사람의 자유의지가 이제 이 생각을 붙잡아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이 생각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지대로 이 생각을 활용한다. 그러므로 이성의 생각은 생각을 만들어 낼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 맴도는 생각의 파장을 선택하고 영접할 수 있다.

이성은 그에게 흘러오는 생각에 파장을 물리치거나 또는 붙잡을 수 있다. 너희가 개발한 라디오 기술의 보내고받을 수 있는 기능과 비교하면, 너희는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높은 의지 또는 높은 존재로부터 파장이 발산 된다. 이 파장은 모든 존재들이 영접할 수 있다. 그러나 존재가 파장에 대해 거부하는 반응을 하면, 이 파장은 강제로 존재에게 들어가 자리를 잡지 않는다.

존재의 의지가 이를 정하기 때문에 존재는 선한 편에서 또는 악한 편해서 영향을 받는다. (1957년 11월 8일) 너희는 항상 너희 위에 모든 종류의 생각의 파장이 맴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파장은 나로부터 나온 내 의지대로 역사하는 빛의 세계에 의해 너희에게 전해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근원적으로 나로부터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대항하는 세력의 의지를 통해 그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대적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어 이제 이런 세력으로부터 너희에게 전해지고 너희의 의지에게 다시 이 파장을 받아들일지 또는 거부할지를 요구한다. 이처럼 너희가 빛의 세계로부터 오는 생각의 파장을 너희의 자유의지의 능력으로 잘못 활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너희가 너희 자신을 나로부터 격리시킴으로 대적자에게 제공하면, 너희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이런 생각에 부정적인 자세를 갖게 할 수 있다. 빛의 존재들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항상 너희에게 역사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대적자 편에 서면, 빛의 존재는 너희를 막을 수 없다.

너희가 빛의 세계로부터 너희에게 전해진 생각에 다른 방향을 부여할 수 없으면, 너희는 자유의지를 갖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동시에 올바르게 생각하게 강요받는 것과 세상에 오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해야만 한다. 너희는 생각으로 먼저 너희에게 접촉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 이 일이 너희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냈다고 너희로 하여금 믿게 만든다.

그러나 그러면 너희의 생각은 아주 제한되었을 것이다. 너희 자신이 육체의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은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항상 같은 영역에 머물 것이다. 그러나 너희 안에 제한이 없는 너희 혼은 나와 연결되어 있고 나로부터 항상 나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를 받는다. 그러나 혼은 나로부터 혼에게 흘러가는 것을 혼의 의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 자신이 그에게 주어진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그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올바르게 또는 잘못 생각할 수 있다. 만약에 그가 단지 의식적으로 나와 연결을 이루면, 나 자신이 그에게 생각이 올바르게다는 보장한다.

이런 연결을 이루지 않으면, 그는 내 대적자의 영향 아래 있다. 그러면 어두움이 빛에 대항해 승리한다. 사람이 내 대적자에게 의존되어 행하는 모든 일은 잘못되고 내 신적인 질서를 여기는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생각하는 일. 뇌. 인상(그림).

B.D. No. 1417

1940년 5월 13일

**사**람의 생각하는 기관이 일하지 않는 동안에는, 다시 말해 생각하는 능력이 양육되지 않은 동안에는, 그러므로 아직 생각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는 동안에는, 이 기관은 쓰이지 않은 책의 한 장과 같다. 유순한 어린 아이의 나이에 있는 이 기관은 아직 활동하지 않는다. 사람의 뇌가 외부로부터 오는 인상을 영접하는 일을 시작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영접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일어난다: 사람의 눈이 본 것을 생각하는 기관인 사람의 뇌로 보내고, 사람의 뇌는 이제 전달받은 인상을 가장 예민한 느낌을 가진 신경막에 역사하게 하면서, 자신의 고유의 업무를 시작한다. 신경막은 인상을 받아들이고, 사람 안에 생각의 형태로 나타난다. 어느 정도 사람의 뇌 안의 인상에 대한 반응이다.

모든 인상은 지금까지 비어 있던 뇌의 표면에서 다시 알아볼 수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지울 수 없게 각인이 되거나, 또는 이 각인이 새로운 인상을 통해 깨달을 수 없게 무의식으로 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더 이상 의식하지 못한다. 사람이 사는 동안 항상 또 다시 새로운 인상을 받아들이고, 반사하는 새로운 층을 만들어 나간다.

그렇지라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항상 줄어든다. 그러므로 받아들이는 표면에서 더 이상 선명하게 인상을 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기관이 인상을 더 이상 아주 강하게 전할 수 없게 되어, 이는 망각하는 현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어느 정도 집중을 요구하는 인상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줄어드는 일로 나타난다. 생각하는 기관은 이제 단지 아주 느리게 일한다. 외부로부터 오는 인상이 더 이상 많은 일을 하게 만들지 못한다. 인상은 더 이상 선명하게 뇌의 벽에 전해질 수 없고, 모든 생각하는 일에 정체되는 일이 일어난다.

사람은 더 이상 쉽고, 어렵지 않게 각각의 과정들을 인식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상들이 선명하지 않고, 흐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라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인상들이 흐려지지 않고 그의 의식에 선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기관이 이 선명한 인상들로 인해 깊은 인상을 받을 수 있어, 이로써 모든 인상이 생각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일의 과정은, 이 과정이 이 전에 했던 체험에 관한 일이라면, 계속하여 깊은 곳으로 들어가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일과 같다. 셀 수 없이 많은 인상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조각으로 각인되어 있고, 모든 자유롭고 비어 있는 곳이 사람의 눈이 받은 인상들로 채워져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표면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인상들로 인해 다시 생성되는 생각의 인상들로 채워진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기관의 생각하는 기능은 자신 안의 특정한 조건에 따라 일한다. 이 일은 외부로부터 오는 인상을 통해 자신 안에서 발생되고, 사람의 의지에 의해 이런 또는 저러한 인상들이 자신에게 역사하게 하는 일이다. 이 모든 인상들은 항상 눈을 통해 그에게 도달해야 할 필요는 없다. 영적인 인상도 같은 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람이 자신 안에서 자신의 의지로 생성되게 한 인상들이 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기관은 사람의 의지에 의해 비로소 활동하게 자극을 받고, 이 생각은 사람의 의지에 합당한 방향으로 향한다.

순전히 세상적인 관심과 상상력은 단지 세상적인 인상을 뇌의 내벽에 전한다. 이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일은 세상적인 상상과 일치하는 그 사람을 지배하는 생각으로 나타날 것이다. 사람의 생각의 과정은 그의 의지와 일치한다. 의지가 그의 생각을 정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대한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적인 눈에, 어떤 종류이든지, 인상을 전할 자유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너무 많은 세상적인 인상들이 인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줄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로써 생각하는 일이 줄어들고, 결국에 영적인 진리에 대해 생각하는 일이 줄어들어, 다시 말해 생각으로 전달되는 것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어,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은 항상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을, 여기에 생각하는 능력도 포함된 모든 능력을 받았고,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에 대한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생각을 형성하는 일이 그에게 자유롭기 때문이다.

아멘

생각하는 일.

B.D. No. 6375

1955년 10월 12일

**생**각이란 무엇인가? 연구자 스스로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가 단지 순수하게 이성적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경우 너희는 절대로 이 질문에 대한 학문적인 답변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의 근원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생각은 영의 세계에서 발산되어 너희 사람들 주위에 전파와 같이 맴돌고 너희가 너희의 의지로 영접할 수 있고 또는 물리칠 수 있다. 생각은 생각하는 기관에 접촉하려는 발산이다. 생각은 생각하는 기관이 행할 준비가 되었다면, 다시 말해 너희가 의지적으로 너희에게 발산해주려는 존재와 접촉하기 원하면, 생각하는 기관이 일하기 시작한다. 이는 힘을 주고받는 일이고 양쪽이 참여하여 이뤄지는 과정이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쪽과 접촉을 하느냐는 그의 의지에 달려 있다.

너희는 너희의 모든 신체기관이 정해진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도록 너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모든 기능을 위해 정해진 특별한 기관이 있고 이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일하고 일부는 자연의 법칙 아래 있다. 왜냐하면 이 일부는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더 나가서 너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너희에게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런 사실의 의미는 어느 특정한 신체 기관의 기능은 너희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지가 인생을 사는 동안 시험을 받아 입증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에 속하는 것이 바로 너희에게 생각할 능력으로 주어진 이성의 활동이고 너희 자신이 이성의 활동을 발전시킬 수 있고 이성의 활동은 발전시키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가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단지 너희에게 주어지고 너희를 감싸고 있는 전파와 같은 영적인 것을 생각할 능력으로 너희에게 역사하게 하는 일이다. 너희는 너희에게 흘러 들어오는 생각을 영접해야만 하고 이제 너희의 이성을 활용하여 작업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생각을 선택할지 어떤 생각을 붙잡을지는 전적으로 너희의 자유이지만 의지와 선택하는 일이 너의 혼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생각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충만한 빛으로 나오는 영적인 힘의 발산이다. 먼저 빛의 존재가 영적인 힘의 발산을 영접하고 이를 모든 생각할 수 있는 존재들에게 쉬지 않고 전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한다. 현재의 어두움의 권세자는 한때 빛과 능력의 소유자였다. 그도 자신으로부터 나온 영향력을 존재들에게 주려고 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서 양쪽으로부터 생각의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다.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의 영향력은 항상 생각의 파장으로 자신을 나타낸다. 사람은 항상 자신의 의지에 합당한 생각을 영접한다. 생각은 절대로 강요하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그 사람의 의지와 성품에 따라 영접을 받거나 거부 된다.

사람 자신이 생각의 근원자가 절대로 아니다. 비록 그가 자주 자신의 이성의 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것이 자신의 영적인 산물이라는 확신을 가질 지라도 그는 이런 생각을 스스로 생산할 능력이 전혀 없다. 그는 단지 그에게 다가와 맴돌고 있는 생각의 파장을 이용한 것이다. 그는 창조주가 그에게 부여한 생각하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어두운 생각의 흐름에 더 많이 향하는 사람에게 빛이 충만한 생각이 항상 자주 그 안에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생각은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하여 그의 생각하는 기관 안에 머물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 방향이 절대로 사람의 의지와 반대로 정해지지 않는다. 그가 어떤 생각하기 원할지 선택하는 일은 그의 고유의 기능이다.

생각하는 능력이란 생각으로 사람에게 접촉해오는 흐름을 분석할 수 있고 그의 의미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생각을 자신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일이다. (1955년 10월 12일)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의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생각의 흐름에 자신을 열도록 강요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생각하기 싫어하는 게으름으로 인해 생각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그는 또한 아래로부터 다가오는 악하고 내용에 가치가 없는 생각을 붙잡을 수 있다. 생각의 방향과 근원지를 정하는 일은 항상 그의 의지다.

빛의 세계에서 온 생각의 흐름은 사람에게 이를 영접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동시에 힘으로 역사한다. 이로써 사람의 생각하는 능력을 날카롭게 해주고 깨우쳐준다. 그러므로 생각으로 영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의 질문을 동시에 빛의 나라의 존재가 받아드리고 사람의 혼 안에 생각의 파장을 일으켜 설명을 받으려는 갈망을 넣어 준다. 이런 갈망을 생각하는 기관이 붙잡는 순간부터 인간의 이성이 이를 의식한다. 그는 이제 그에게 발산해주는 존재와 연결을 이루고 이 존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빛을 전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사명을 받아 어두움을 전하는 자신의 일을 행하게 된다.

모든 생각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에게서 온 것이거나 하나님의 대적자 편에 선 존재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 절대로 아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영의 나라에서 온 전한 상태가 되어도 그는 단지 근원인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받았고 최고의 지혜가 들어있는 사랑의 능력을 전한다. 사람들의 서로 다른 생각을 통해 영적인 존재들에게 구분할 수 있는 끝 없이 많은 서로 다른 지식의 정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영적인 존재들 모두가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오류가 있고 부족한 영적인 생각으로부터 사람의 의지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 땅의 삶의 목표와 목적 대로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는 같은 권한을 자신의 대적자에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서로 다른 생각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게 하고 사람이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결론지은 대로 첫 번째로 갔던 방향에서 되돌릴 수 있고 그가 선택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의 이성은 진리가 아닌 사상에 대항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적인 진리 안에 선 빛의 존재에게 섬기도록 맡겨진 사람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부여하려는 빛의 존재의 노력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명은 빛과 진리를 양심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빛과 진리를 전파하고 어두움을 물리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심장을 열고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서 반응하는 풍성한 생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빛의 나라에서 온 발산은 그 안에서 점화되어 밝은 빛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해서 결과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 전에 자신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자신의 영적인 소유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했다는 점에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 전에 자신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그에게 이제 그의 소유물로 남고 그가 영의 나라에게 복된 사역을 하도록 허용을 받게 되면, 그는 또한 그의 소유물을 다시 발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생각하는 일. 심장. 두뇌.

B.D. No. 0962

1939년 6월 13일

**너**희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왜냐하면 너희 안의 영이 너희가 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표현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의 뜻대로 행한다면, 너희는 최종적으로 삶의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생각은 영의 힘이고, 계속 전달이 된다. 그러므로 생각은 그가 죽지 않았고, 살아 있고, 활기가 있고, 그가 사람의 생각하는 활동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최고의 증거이다. 영의 세력을 통해 규칙적으로 양식을 공급하는 일이 실제 사람이 생각하는 일이다. 사람들에게 이 영의 힘의 흐름을 영접하고, 어느 정도 심장을 향해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심장은 모든 영의 힘을 받아들이는 곳으로, 끊임없이 그에게 주어지는 양분을 처리하고, 처리한 후에 뇌의 중심으로 다시 전달하고, 뇌의 중심으로부터 인간의 신체 기관을 움직이게 한다. 이런 과정은 사람이 아직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금까지 유일하게 뇌가 그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잘못된 관점을 가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의지가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생각이 이제 신체를 움직일 때까지, 우선 다른 신체기관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잘못된 관점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장은 영의 힘을 받아들이는 곳이다. 심장에서 사람이 얼마나 영의 힘을 즉 생각의 전달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지에 따라, 비로소 선택이 이뤄진다. 선택하는 일은 신체의 내장기관으로써 뇌가 전달받은 영적인 내용을 영적인 재물로 받아들이게 하거나 또는 피상적으로 받아들인 후, 즉시 버리게 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특히 분별력이 충만하고, 받아드릴 자세가 되어 있는 혼이 심장으로 받아들인 것을 뇌에 전하기 원할 때, 자주 반발심을 느끼는 일이 일어난다. 뇌가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다시 사람의 심장으로 보내면, 생각은 심장에서 다시 압력을 받아, 뇌의 저항이 무력화되기까지, 이로써 영의 힘에 대한 뇌의 반발이 적으면, 적을 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는 영의 힘이 뇌에게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뇌가 행해야만 하는 대로 행할 때까지, 항상 또 다시 뇌에게 전달이 된다. 생각의 과정은 단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남김 없이 설명할 수 있다.

같은 지혜를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전할 때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영접하는 지, 다시 말해 서로 다르게 믿는 지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다. 사람이 결국 심장으로 받은 것을 영접하고, 영적인 내용으로 평가할지는 단지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그가 기관이 꼭

필요한 행동을 하는데 요구되는 만큼만 영의 힘을 활용하면서, 다시 말해 전적으로 세상적인 생각을 위해 활용하면서, 유일하게 기관이 하는 일을 통해 어느 정도의 저항을 할지는 단지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장과 생각의 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영의 힘이 전달되기 전에 먼저 심장으로 향해야만 하고,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일과 연관된 신체 기관이 모든 규모로 영접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삶을 사는 심장은 말할 수 없게 풍성한 능력을 제공받는다. 이로써 그 안에 사랑이 거하는 사람의 영적 지식이 증가하게 된다. 그는 가장 충만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생각하는 기관.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 흘러 들어옴.

B.D. No. 2363

1942년 6월 9일

**영**의 나라에서 생각들이 너희에게 쉬지 않고 흘러간다. 너희는 이 생각을 너희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단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너희가 어떤 생각을 받아드릴지는 너희 의지가 정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 의지에 따라 빛이 주는 영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어둠이 주는 내용을 너희 소유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각을 관할하는 기관은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져서 모든 비추임에 반응한다. 다시 말해 생각이 마치 전파처럼 생각하는 기관을 둘러싼다면, 생각하는 기관은 그가 동의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즉 사람의 의지가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일한다.

왜냐하면 의지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의지가 한 생각을 거부하는 반면, 다른 생각을 어느정도 받아들이는 일을 허용한다. 이는 선하고 신적인 것을 향한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향한 그의 자세에 따라 이뤄진다. 두 가지 세력, 빛의 충만한 생각의 흐름을 또는 어두운 영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생각의 흐름을 사람이 행복하게 느끼거나 또는 불쾌하게 느끼기 때문에, 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반면에 다른 생각은 거부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근본자세가 사람의 의지가 어떠한 생각이 자신에게 역사하게 할지에 결정적이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하는 기관이 한번 받아들인 것은 항상 머물러 있고, 사람이 받아들인 것을 생각해보기 원하면, 이 생각이 항상 표면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람의 의지가 선을 향해 있다면, 생각의 내용도 그와 같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생각의 내용이 단지 빛의 나라에서 그에게 흘러가는, 즉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것이고, 사람이 주로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세상적인 일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그는 영적인 굶주림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갈망에 합당한 영적인 전달내용을 받아들일 것이다. 반면에 그는 다른 내용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한다. 그에게 모든 편에서 생각이 전해진다. 다시 말해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 그들의 생각의 세계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것을 사람들이 영접하려는 경향을 갖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사람이 이제 생각이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을 이룬다면, 그는 당연하게 하나님과 연결된 세력이 주는 생각을 영접할 것이다. 이 세력이 대적하는 세력의 영향을 막아준다. 이 역

사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생각의 내용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거부하는 자세를 갖는 사람의 의지를 통해 나타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올바른 생각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 안심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통해 선한 세력이 공급해주는 영의 흐름을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주는 생각의 내용을 잘못된 것으로, 거부할 만한 것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선한 영의 세력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의 판단력을 열심히 길러주고, 자원하는 사람이 악한 영향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준다.

아멘

생각 활동.

B.D. No. 2039a

1941년 8월 21일

**순** 수한 영적인 교환은 순수한 영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영적 지식의 전달은 영적인 지식을 주는 세력으로부터 영적인 지식을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선한 영의 세력의 요구 사항이고, 의식적으로는 깨달음을 위한 기도를 통해, 무의식적으로는 인간이 하는 영적인 영역에 관련된 질문을 통해 요구한다. 그러므로 알고 있는 영의 세력이 응답을 한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이 땅과 더 많이 연결을 이룬다면, 다시 말해 그가 원하는 설명이 순전히 세상적인 것이면, 그는 순전히 이성적으로 스스로 자신에게 답을 할 수 있다. 이성은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이성은 온전함에 도달한, 단지 하나님의 힘의 흐름만을 전달하는 저세상의 세력의 영적인 사역과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세력들이 전해주는 것은 이성이 이성으로써 절대로 헤아릴 수 없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가장 깊은 깨달음과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의 질문은 실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생명체에게 흘러 가는, 어떤 영적 질문도 해명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자신의 것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역사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세상적인 추구를 하는 사람의 생각의 내용이 아주 크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이 그에게 빛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런 지식은 죽음의 순간에 소멸되는 반면, 영의 나라로부터의 전달된 지식은 모든 혼의 재산으로 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런 지식은 쇠하지 않는 재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중개자를 통해 이 땅으로 보내는 가장 순수한 영의 힘이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증거는 그런 지혜가 생각의 활동이 없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일이다. 반면에 세상적인 해답은 예외가 없이 생각의 활동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력이 사용된 것이다.

아멘

생각 활동.

B.D. No. 2039b

1941년 8월 21일

**인** 간에게 영적인 힘과 접촉하도록 강요할 수 없고, 이런 접촉은 자유의지로 행해지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가 아는 세력들과 연결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에게 생각할 가능성이

주어져야만 한다. 그러면 그가 하는 일은 단지 순전히 세상의 문제만 풀 수 있게 되는 제한을 받는다.

그러면 단지 그의 육체적인 기관이 활동을 한다. 그가 저세상의 세력의 지원을 구하지 않는 동안에는, 그는 저세상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임하는 생명력을 사용한다. 사람이 이제 가진 생각은 전혀 영적인 가치가 없고, 따라서 영원을 위해 가치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그의 생각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쇠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의 내용이 세상 밖에 있는 문제로 향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태도를 통해 저세상의 지식을 가진 세력의 영향력에 저항한다. 결과적으로 그의 생각이 진리와 완전히 모순이 된다. 그러므로 인간 자신의 의지가 요구하는 영적인 세력이 항상 자신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질문을 하자 마자, 항상 영적인 세력들이 역사한다. 반면에 이 땅의 질문은, 비로 사람이 이성의 사고가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을지라도, 단지 인간에게 주어지는 생명력만이 필요하다. 저세상의 무지한 세력들이나 또는 부인하는 세력들은 실제 사람들이 순전히 이성적으로 결과를 도달했다고 믿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 영의 역사를 부인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람은 자신을 모든 생각의 근원으로 여기고,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런 견해를 강하게 한다. 단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생각의 본질을 이해하다. 그는 빛의 나라에서 그에게 오는 흐름을 느끼고, 자원하여 선한 영의 세력의 영향을 받아드린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단지 진리 안에 서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게 임하는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빛의 전달자를 통해, 하나님이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진리가 사람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

심장에서 나오는 생각과 이성에서 나오는 생각. 진리.

B.D. No. 2302

1942년 4월 14일

 든 사람은 자신이 이성으로 쌓아 올린 관점을 가지고, 자신이 깨달음의 상태에 있다고 여긴다. 그럴지라도 그의 관점이 항상 진리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성과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심장을 주었다. 심장이 없이 이성만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아주 어렵게 진리에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직 물질인 육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단지 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적인 사고는 단지 육체의 기능이다. 그러나 심장이 모든 느낌을 받는 곳이다. 심장 안에는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의 불씨가 있다. 즉 하나님의 일부분인 영이 있다. 심장에서부터 나온 생각은, 그의 근원이 하나님의 영의 불씨이기 때문에 항상 진리라는 신뢰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영은 단지 순수한 진리를 주기 때문이다. 생각이 심장에서부터 왔는지, 이성으로부터 왔는지는, 심장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사람이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될수

록, 다시 말해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할수록, 더 선명하게 심장에서부터 생각이 올라와, 사람의 의식에 도달한다.

왜냐하면 생각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의 능력이고, 동시에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과 연결을 이룬 사람의 심장으로 흘러가는 영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생각은 단지 신체기관의 기능에서 오고, 그러므로 사랑이 없이 사는 사람도, 즉 심장에 사랑의 능력이 없는 사람도, 또한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장에서 오는 생각과 이성에서 오는 생각을 분리해야만 한다. 심장에서 나오는 생각은 항상 진리를 나타내는 반면에, 이성에서 나온 생각은 아무리 잘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항상 진리가 아니다. 진리인지에 대해 결정적인 것은,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람들이 생각의 본질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이 차이를 선명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심장에서 나온 생각과 이성에서 나온 영적 지식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의식할 수 있도록 두 뇌에 전달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생각이 두뇌로부터 온다고 생각한다. 즉 이성적으로 도달한 것으로 생각한다. 사랑을 행하는 사람의 생각의 내용은, 다시 말해 그의 삶이 언제나 사랑을 해온 사람의 생각의 내용은, 적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의 이성에서 나온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평가해야만 한다.

첫 번째 사람은 진리에 가까워지지만, 두 번째 사람이 진리에 합당한 지식에 도달한다는 보장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를 간직하고 있다가, 단지 자신을 인정하고, 간절히 찾고, 사랑의 삶으로 이를 증명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심장에서 오는 것은 의심없이 진리로 받아드려도 된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지식을 가진 영적인 존재에 의해 확실하게 점검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생각을 전하는 일을 맡았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 가운데 머물도록 양심적으로 지키는 존재들이다. 사람은 사랑의 삶을 통해, 빛의 존재들의 보호와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얻고, 빛의 존재들은 진리와 부합되지 않은 생각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한다.

아멘

생각은 영적인 힘이다.

B.D. No. 1757

1940년 12월 30일

**깨**달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더 이상 자신이 얻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신의 생각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영의 존재의 발산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영의 존재는 사람이 생각을 받아드릴 때까지,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모든 생각은 영적인 힘이다. 다시 말해 생각은 인간의 생각하는 기관에 의해 영접을 받고, 그가 이제 의식하게 되기 위해 저세상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향하는 길을 거친 어떤 영적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생각은 이제 인간이 소유한 영의 성품과 또는 사람이 자신을 의탁하는 것과 일치해야만 한다. 영의 존재가 발산하는 힘은 엄청나다. 그러나 선한 존재와 악한 존재가 마찬가지로 이런 힘의 발산을 이 땅으로 보내기를 원하고, 이런 발산은 항상 같은 생각을

가진 이 땅의 존재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성품에 해당하는 생각을 전달받게 될 것이고, 항상 갈망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리를 갈망하는 곳에 진리가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거짓이 거하는 곳에는 마찬가지로 거짓이 제공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은 인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의 의지에 따라 영의 존재들로부터 받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 낼 수 없다. 그는 자신이 동인이 되어, 생각을 불러일으킬 능력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생각은 바로 영적인 힘이고, 그러나 이 힘이 먼저 영의 나라에서 그에게 주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단지 무지한 사람이 자신이 자신의 생각의 창시자라고 믿는다.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의견대로, 생각은 단지 특정한 기관의 기능이고, 외부 영향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발생하고, 그러므로 사람 자신이 모든 생각을 스스로 불러일으키고,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이 생각의 근원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선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나, 깊은 생각이나, 얕은 생각이 항상 그 사람 자신에게서 기원 된 것이고, 그러므로 자신의 공로라고 말한다. 그는 이 가운데 영의 힘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 힘을 부인한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가 생각을 통해 전해진다면, 그에게 진리를 확신시키는 일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의 과정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의 실제적인 특성은 그들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이 깊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관해, 그들 자신이 동인이 되어 최종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까지 그대로 머물게 되 것이다. 그가 신뢰하는 가운데 진리를 갈망하고, 영의 존재들에게 해명을 요구할 때, 비로소 어떻게 영의 힘이 이제 생각의 형태로 그에게 흘러가는지를 스스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이 그런 생각의 기원이 될 수 없고, 영의 나라의 영의 존재에 의해 그에게 어떤 영적인 것이 전해진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생각의 게으름.

B.D. No. 6296

1955년 6월 27일

**세**상이 사람을 사로잡을 수록 그는 진리에 더 무관심하고 진리를 덜 갈망하며 그에게 진리로 제시되는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받아드리거나 또는 생각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그의 심장이 진리를 알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혼의 큰 위험을 다시 보게 된다. 왜냐하면 진리가 없이는 너희가 목적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올바른 설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의식적으로 살지 않고 항상 단지 이 땅의 재물을 쫓는다. 그러나 너희는 이 땅의 재물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너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너희는 죽음 후에 계속 산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 계속 사는 일에 대해 너희가 무관심하고 전혀 알기를 원하지 않고 바로 이런 무관심으로 너희가 절대로 너희 육체의 죽음으로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는 내적인 확신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웃에게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다면, 이 땅의 하나님의 종들은 훨씬 더 많이 자원하여 받아들여려는 의지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 이제 얻는 깨달음 대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일보다 다른 모든 일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무관심을 증가시키는 모든 일을 정죄해야 한다. 그들이 믿어야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일을 정죄해야 한다. 특정한 편에서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단지 받아드려야 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고 복종하는 동안에는 모든 책임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일을 정죄해야 한다.

그런 모든 가르침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을 게을리하도록 유도하고 이웃이 자신 대신에 생각하게 하고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느끼도록 돕는다. 사랑을 행하는 일이 그런 사람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삶이 끝날 때까지 무지하고 오류에 빠져 있게 된다. 그러나 단지 진리가 하나님께 인도한다. 그러므로 그가 이 땅을 떠나면, 그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

사람들의 진리를 향한 갈망이 더 많이 발견 된다면, 그들 가운데 진실로 이렇게 큰 영적 어둠이 없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리를 향한 갈망의 결과로 그들의 생각이 올바르게 인도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 대로 살고 이를 통해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간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지 그들의 세상적인 지식을 확장시키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식이 그들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의 지식을 통해 그들의 육체적인 안녕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 제공될지라도 다른 모든 지식에 대해 자신을 닫는다. 그러므로 이 땅이 어둠 속에 가려져 있다. 왜냐하면 빛은 단지 빛을 갈망하는 곳으로 비추지만 빛을 거부하는 곳으로 절 대로 비추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사람의 생각에 미치는 거짓 권세자의 영향.

B.D. No. 1580

1940년 8월 24일

**인**류의 행동거지를 보라. 거짓의 영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고, 거짓의 영이 말할 수 없는 혼돈을 일으킨다.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더욱 진리로부터 멀어진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짓을 생각을 통해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를 깨달을 만한 자신의 판단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삶의 느낌도 잘못된 길로 인도받는다. 사람 안의 영적인 존재를 둘러싼 겉 형체가 갈수록 더욱 두터워지는 일은 이제 이해할 만한 일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 항상 점점 더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일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사람 안의 영이 더 이상 자신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혼이 진리를 영접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영의 음성은 항상 더 작아 지고, 결국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된다. 이의 결과는 인류가 원래 인류에게 주어진 목표가 아닌, 전혀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전적인 무지함 가운데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써 이 땅의 과정이 전적으로 아무런 결과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오류 안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가 결별해야 할 권세를 향해 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이제 자신에게 돌아온 의지를 활용하여, 하나님과

모든 연결을 끊게 하고, 그를 자신의 전적인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게 한다. 이러한 상태를 이제 인류 가운데 눈에 띄게 볼 수 있다.

이 땅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행되고, 단지 아주 희귀하게,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을 생각하거나 또는 모든 영적인 생각을 두려워하며 숨긴다. 비록 하나님을 생각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는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대적자의 세력들의 드러나게 나타나는 역사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대적자의 영향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갈수록 영원한 신성으로부터 항상 멀어 지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대적할 수 있는 그들의 힘은 항상 줄어든다. 반면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그에게 힘을 주어, 그가 모든 세상적인 추구를 하도록 지원한다. 세상적인 성공은 항상 바로 이런 힘에 의해 보장이 된다. 세상적인 성공은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다시 멀어지게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그를 부인하기 때문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의 의도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대적자는 사람들을 전적으로 자신의 권세아래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적자는 누가 승리하도록 허용할지 자유로운 존재에 대해 승리자가 된다. 존재는 하나님의 대적자를 선택한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인생을 전적으로 잘못되게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세상적으로 추구할 만하게 보이는 것들이 자신의 권세아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 원한다면, 그런 것들을 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파괴의 역사는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을 무계획적으로 파괴시키는 역사가 아니고, 이런 파괴의 역사는 영적으로 볼 때 수많은 존재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역사이다. 파괴되는 역사의 깊은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삶의 내용이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깊은 충격을 받는다. 그들은 다시 똑같은 것을 다시 한번 추구할 것인가 또는 그것의 허무함을 깨닫고, 이제는 쇠하지 않는 것을 모을 것인가 결정하는 기로에 선다. 대적자는 파괴되는 역사의 순간에 권세를 잃는다. 사람들이 대적자의 무기력함을 깨달을 때, 자기 위의 다른 주인을 깨닫고, 이 주인에게 향할 기회가 사람들에게 있게 된다.

세상 재물은 악한 권세의 일부분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구속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이 머물러 있고, 사람 자신이 그 안에서 영원에 영원한 기간을 걸쳐 머물렀던 장소였던 것을 갈망해서는 안 된다. 그는 그가 극복하기 위해 끝없는 시간을 보냈던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파괴의 역사를 통해 그에게 세상적인 것의 가치 없음을 볼 수 있게 증명해줘야만 한다. 그래서 그가 세상 재물과 거리를 두고 자신 뒤에, 이 땅을 떠난 뒤에 다가오는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는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하고, 영적인 것을 갈망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마지막 형체를 극복하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진리의 나라에 속한 것이다. 반면에 세상에 속한 것은 쇠하는 것으로, 어두움의 나라에, 거짓의 나라에 속한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것 안에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파문을 받은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만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세상 재물을 탐하고, 이런 탐욕으로 거짓 권세자에게 권세를 부여하는 동안에는, 그들은 절대로 진리 가운데 설 수 없다. 그가 세상적인 재물을 추구하는



동안에 그는 거짓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는 잘못된 생각에 머물러야만 한다. 왜냐하면 거짓 권세자가 그의 생각에 먼저 역사해서, 그가 진리로부터 전적으로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상태는 아주 걱정스러운 상태이다. 하나님 자신이 세상의 소유물을 파괴하면서 대적자의 권세를 꺾을 때, 단지 이 상태가 해결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은 생각하기를 요구한다.

B.D. No. 7448

1959년 11월 6일

**너**희가 내 부름을 들으면, 너희 심장을 닫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 원하는 것을 들으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심판해보라. 너희가 너희에게 아직 부족한 것을 너희가 아직 내 영이 내면으로부터 너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있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너희 모두는 내 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신적인 아버지의 영의 불씨가 이 불씨가 불이 붙었든지 또는 꺼졌든지 간에 너희 안에 모든 사람 안에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씨는 너희 안에 있고 단지 너희 안에 작은 사랑의 불만이 필요하다. 그러면 너희가 불씨에 불을 붙이고 밝은 불길로 타오르게 할 수 있다.

너희는 너희 안의 불씨가 타오를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주었느냐? 그러면 불씨는 작은 빛을 발산해야만 된다. 이런 작은 불빛 가운데 너희는 너희가 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영의 어두움 가운데 아직 살고 있는 너희에게 연관관계를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에게 깨달음을 주게 움직이려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생각하지 않는 너희에게 말한다. 왜냐하면 진지한 생각은 너희가 의심하고 질문하게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직 어두운 영으로 있고 스스로 너희 안에 빛을 아직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생각하느냐? 너희는 실제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믿지만 그러나 눈이 아주 먼 상태여서 그들을 인도자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부족한 영적인 상태를 한번 생각하라.

자신이 사랑과 지혜와 권세인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는 사랑과 지혜와 권세를 알게 해주는 모든 것들과 걸를 둘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라. 너희에게 제공되는 변개가 되었거나 또는 순수한 사람의 가르침이 되버린 믿음의 가르침 가운데 어디에서 사랑과 지혜와 언제를 찾아 볼 수 있느냐? 너희는 단지 깊게 생각해 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 눈에 비늘이 사라지게 돼야만 한다. 무한 가운데 가장 큰 영인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이 교회의 계명이 정한 것과 같은 요구를 너희에게 하지 않는다. 그가 유일하게 너희 사람들에게 요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너희가 단지 이 요구를 따르면, 너희의 내면은 이미 밝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는 너희 안의 영의 불씨가 생명으로 깨어나게 되고 이 불씨가 너희를 모든 진리 안에서 인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 장 15-26: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해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어디에서 진리를 구하느냐? 변개가 된 영적인 내용에서 잘못 된 가르침에서 사람이 단지 자유의지로 완성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반면에 영적인 강요를 아직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가르침에서 구한다. 너희는 이런 모든 가르침과 사람이 만든 계명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데 방해받는다라는 것을 이미 생각해 보았느냐?

사람이 선포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계명을 대부분 뒤에 두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믿느냐? 너희는 이미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가 생길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치고 인도하게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을시키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미 생겼는지 생각해 보았느냐?

너희는 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운 교회라는 권리가 없는 사람의 작품을 앞세우느냐? 실제 너희 사람들 가운데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고 그의 영이 깨어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속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세운 교회는 사람의 작품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실제로 모든 조직 안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진정하게 믿는 자들의 공동체이다. 그러나 이 공동체의 선행조건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너희가 사랑 안에서 살면, 너희 안의 영 자신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너희는 밝게 보고 밝게 듣는 가운데 너희가 깨어나지 못했을 때 아직 방어하고 굳게 붙잡았던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로서 나는 사람들을 단지 내면의 상태에 따라 그의 사랑의 삶으로 그의 깨달음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에게 빛이 주어지면, 그 스스로 빛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는 기뻐하며 생명의 빛으로 자신의 혼을 밝혀 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면 내 사랑은 항상 빛이 형태로 너희에게 다가가기 때문이다. 왜냐면 단지 빛만이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진리가 영원한 빛이기 때문이다. 단지 나 자신이 영원으로부터 빛인 나 자신으로부터 항상 빛이 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생각을 교환하는 일의 축복.

B.D. No. 3160

1944년 6월 17일

**영**적인 생각을 교환하는 일은 항상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면 진지하게 영적인 생각을 교환하는 일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단지 영적인 생각을 교환할 것이고, 따라서 진리에 합당한 영적인 생각을 전해주는 영의 세력의 지원과 조언을 받기 때문이다. 영의 세력은 항상 계속하여 사람을 돕고, 사람의 지식을 증가시키고, 사람이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게 한다. 이런 일은 항상 사람에게 영적인 성장을 의미한다. 빛의 존재는 또한 영적인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한다. 이로써 그들에게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빛의 존재가 사람들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생각을 교환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이제 사람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말하게 한다.

빛의 존재는 자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즉 영적인 대화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돕는다. 왜냐면 빛의 존재가 이제 제한이 없게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그들을 가르칠 수 있고, 대화의 내용은 항상 인간의 성숙한 상태에 맞게 조정이 될 것이다.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혼은 항상 대화로부터 유익을 얻을 것이다. 왜냐면 빛의 존재가 사람에게 제공하는 모든 선물은 건설적이고, 지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야만 하는 하나님의 힘의 발산이기 때문이다. 빛의 존재는 항상 단지 사람들의 조연자가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단지 순수한 진리를 갈망하고, 영적 대화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로 인해 성장 정도가 증가되는 불가피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왜냐면 한번 생각으로 영접한 지식이 사람이 자신이나 이웃 사람에게 영접한 지식을 활용하도록 자극할 것이고, 두가지 활용이 영적인 성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적 대화를 자주 해야 한다. 이런 대화는 개인의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영의 나라로부터 오는 힘의 전달이고, 항상 영적 요소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왜냐면 영의 나라로부터 오는 것은 사람들의 혼에게 직접 전달이 되고, 혼의 영적 요소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인간을 높게 성장시켜야만 하는 힘을 공급해주는 일이다. 생각의 교환은 또한 영의 나라로부터 오는 가르침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사람이 비록 빛의 존재가 항상 사람 주변에 있다는 것이 사람에게 분명해야 하지만, 그가 말로 표현된 생각의 기원을 깨닫지 못하면, 생각을 교환하는 일이 항상 가르침의 한 형태라고 평가할 수 없다. 사람들이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가길 원하고,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 힘이 닿는 대로 노력한다면, 단지 영적인 질문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을 사람들에게 보낸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께 질문하고, 서로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준다. 왜냐면 모든 생각의 교환은 질문과 대답이지만, 진리를 향한 열망에 따라 이런 질문과 대답이 진리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이런 대화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깨우쳐주기를 구하는 긴밀한 기도를 먼저 드릴 때, 사람은 비로소 진리를 진리로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대상이 되길 원하신다.

B.D. No. 7376

1959년 6월 27일

**너**희가 어떠한 길을 가려고 하든지 간에 너희는 단지 나 자신만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잘못 된 길을 간다. 만약에 너희가 세상을 향할 때 너희의 감각과 생각은 나에게 향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가 가는 이 길은 잘못 된 길이라는 확신이 너희에게 서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돌이킬 때 너희의 생각은 확실하게 영적인 영역에 머무르고 너희는 이 세상 밖에 있는 것들에 관해 생각할 것이다. 너희는 아직 비밀인 것을 체험해보려고 한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 생각을 영의 영역으로 인도하려는 빛의 존재의 영향력을 따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를 구하는 곳에서 이런 시도는 항상 성공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목표가 돼야만 한다. 너희는 나와 함께 같이 생각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안전하게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간다. 단지 이런 방식으로 너희 사람들은 항상 세상에 대한 경고를 받을 수 있다. 너희 의지의 시험을 위해 운명적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는 모든 감각으로 이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기 위해 너희에게 주어진 요구들 바르게 성취시켜야 한다. 그럴지라도 필요한 것 이상으로 세상에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노예가 되서는 안 된다. 운명이 너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구하면, 이 때에 너희가 생각으로 나를 떠나서는 안 되고 내 인도를 받아 너희의 생각과 행동을 정해야만 한다.

나는 단지 너희의 의지가 선하면, 너희에게 영향력을 주기 위해 진실로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만약에 사람의 의지가 세상에 속했다면, 그는 잘못 된 길을 갈 것이다. 그의 목표는 다른 것이 될 것이다. 그는 세상에 전적으로 빠질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또 다시 다가간다. 만약에 그가 내 낮은 소리로 하는 경고와 권면을 무시하며 나와 적게 또는 전혀 관계하지 않으려고 할 때 자주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다가간다.

그러면 그는 자주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오는 심한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 나는 그에게 자주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세상 물질의 허무함을 깨닫게 해줘야만 한다. 그가 심장으로 탐내는 것을 빼앗아야만 한다. 나는 결국에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만 하는 그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그의 눈길을 세상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돌이키게 해야만 한다.

그는 나 없이는 복될 수 없다. 복된 것은 그의 영원한 생명이고 육체의 죽음 후에 그의 혼의 상태이다. 그가 나를 이 땅에서 찾지 못하면, 비록 영의 나라에서 가능하기는 하지만 나와 하나가 되는 일은 어렵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나 없이 이 땅의 삶을 마치면, 나를 찾기가 이 땅

보다 그에게 더욱 어렵게 된 곳에서 수고하며 인도받아야 하고 목표가 측량할 수 없게 더 멀어진다.

이 땅에서 나를 구하는 사람은 나를 만날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그에게 다가가고 그가 다시 나와 하나가 될 때까지 내가 그로부터 더 이상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복되기 원하면, 나는 너희가 도달해야만 하는 목표이고 목표로 남는다.

아멘

이성의 사고. 하나님의 진리.

B.D. No. 5199

1951년 8월 29일

**너**희가 너희 자신의 길을 가고, 생각에서 나와 거리를 두고, 내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너희는 항상 갈등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와 굳게 연결을 이루고, 너희의 생각이 나를 찾으면, 너희는 또한 너희가 진리 안에 있다는 전적인 확신을 갖게 되고, 모든 의심을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 임재가 너희에게 단지 순수한 진리를 알려주고, 너희는 내 임재 가운데 오류의 피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의심에 빠지게 되면, 너희가 스스로 그런 의심을 너희 안에서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왜냐면 너희가 이성으로 연구하고, 이로써 내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내 영으로 관철시키지 않는다. 너희가 너희 이성만으로 일하는 동안에는 너희에게 원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너희가 생각으로 너희 자신을 나에게 드리고, 깨달음을 구하면, 너희의 연구 대상이 너희에게 밝고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것이고, 모든 의심이 사라질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의 기도로 부르는 내 옆에 의심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너희 안의 모든 의심을 물리치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긴밀하게 속하게 되고, 이로써 나 자신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면, 모든 의심을 물리치는 일은 성공할 것이다.

나에게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일은 아주 쉽다. 그러나 너희가 심장 안에서 답을 느낄 때까지 이성을 제외시켜야 한다. 너희는 적게 생각해야만 한다. 그러나 내면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그가 진지한 의지와 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깊은 믿음으로 아직 이를 시험해보지 않는다면, 이런 과정은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 안에서 내 대답을 절대로 들을 수 없다. 왜냐면 그는 절대로 자신의 말을 심각하게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 안에서 내 응답을 받을 수 없다. 왜냐면 그가 절대로 진지하게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은 그가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는 심장 안에서 내 응답을 느낀다. 진정으로 실제적인 일인 내가 말하는 것을 듣는 일이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의심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 단지 기도로 나와 긴밀하게 연결을 이루면 된다. 반면에 그가 나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가 오랫동안 숙고할 수 있고 확실한 결과를 찾을 수 없다. 내가 없이는 너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고, 내가 없이는 너희는 진리를 진리로 깨달을 수 없다. 너희는 또한 나와 긴밀하게 연결이 된 가운데 내 말씀을 듣는 이웃과 나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종의 입을 통해 순수하고 변개되지 않은 상태로 진리를 받는

다. 그러나 너희가 나와 연결을 이루어 이로써 영이 너희가 진리를 이해하게 만들지 않고, 너희 자신이 단지 너희의 이성으로 듣는 동안에는, 너희에게 내 말씀이 의심스럽게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이 아직 나와 연결을 이루지 않는 동안에는 이 땅의 내 대변자들이 단지 전할 수는 있지만 확신을 갖게 해줄 수는 없다. 그러나 내 말씀이 그가 나를 찾도록 자극할 것이고, 나는 기꺼이 그가 나를 찾게 할 것이고,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를 그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 너희가 의식적으로 나로부터 진리를 받고, 너희의 의지와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을 통해 내 임재를 허락하면, 진리가 너희의 혼이 성숙하게 할 것이다.

아멘